

# Courier Correo Courier

2017년 4월  
32권, 1호



**Mennonite  
World Conference**  
A Community of Anabaptist  
related Churches

**Congreso  
Mundial Menonita**  
Una Comunidad de  
Iglesias Anabautistas

**Conférence  
Mennonite Mondiale**  
Une Communauté  
d'Églises Anabaptistes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  
아나뱃티스트 교회 공동체

## 3

감동과 성찰

정신 건강이 교회에  
영향을 미칠 때

## 8

아나뱃티스트의 관점

교회는 정신  
건강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하는가?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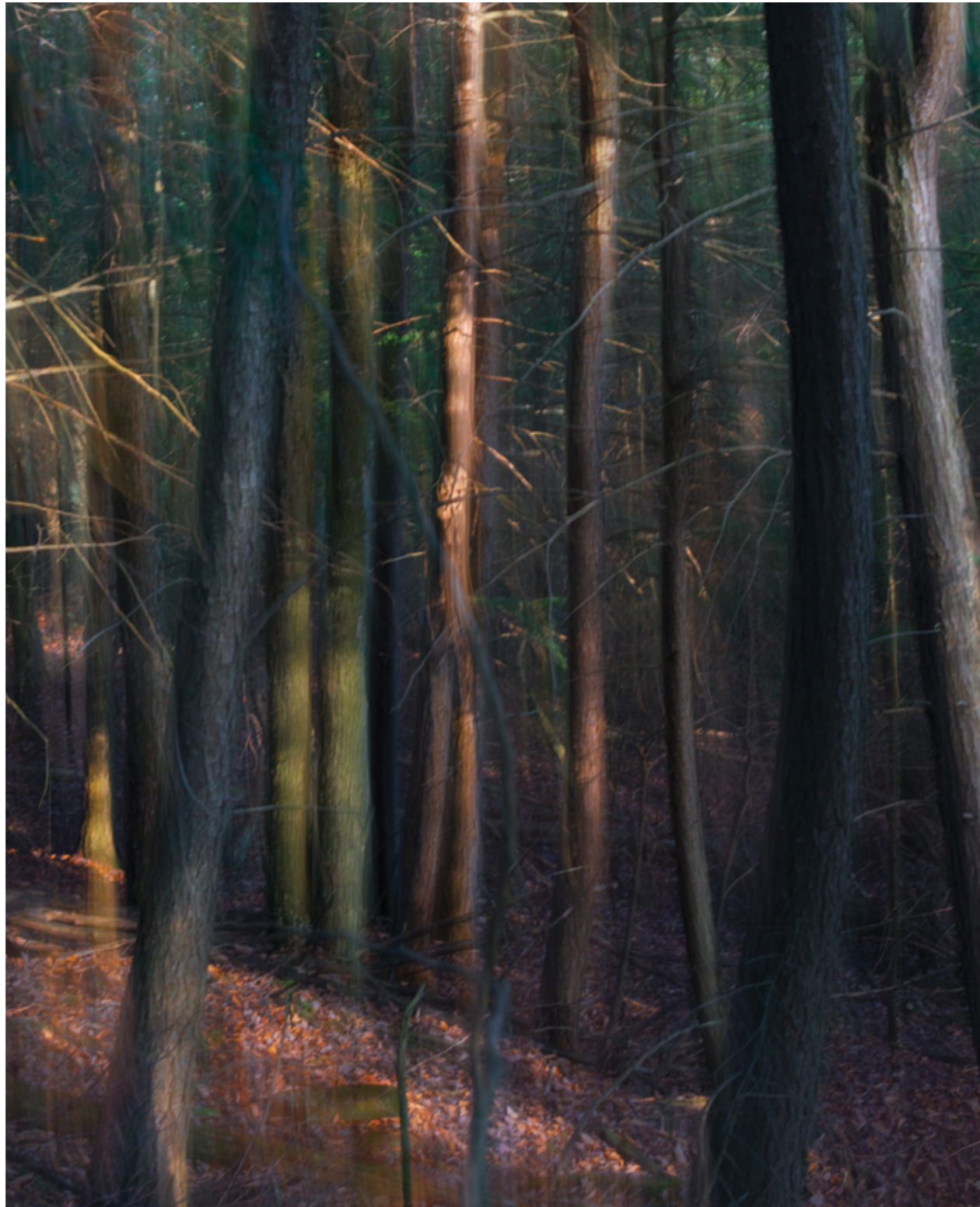
지역 개요

태국

## 16

자료들

세계 연대 주일  
갱신 2027  
집행위원회 회의  
평화 주일



표지 사진

## “우리의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어둠에 쌓인 것처럼 보일 때도, 주의 깊게 살핀다면 항상 빛을 찾을 수 있다. 어두워 보이고 심지어 악으로 가득 차 보이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더 유심히 바라보고 그 어둠 속에 있는 빛을 발견해야 한다. 빛이 존재한다는 흔적을 발견했다면 때로는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어둠을 한 층 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진 출처: 에드 레밍(Ed Lehming), 공동체 메노나이트 교회, 스토우프빌, 온타리오, 캐나다

CORRECTION: in “Joyous hope and faith: Mennonite churches in Eastern Africa” the October 2016 issue, youth leader Daniel Mtoka’s name was misspelled.

## Courier Correo Courier

Volume 32, Number 1

*Courier/Correo/Courrier* is a publication of Mennonite World Conference. It is published twice a year, containing inspirational essays, study and teaching documents and feature-length articles. Each edition is published in English, Spanish and French.

**César García** Publisher  
**Kristina Toews** Chief Communications Officer  
**Karla Braun** Editor  
**Melody Morrisette** Designer  
**Sylvie Gudin** French Translator  
**Marisa & Eunice Miller** Spanish Translators

*Courier/Correo/Courrier* is available on request. Send all correspondence to: MWC, Calle 28A No. 16-41 Piso 2, Bogotá, Colombia.

Email: info@mw-cmm.org  
Website: www.mw-cmm.org  
Facebook: www.facebook.com/MennoniteWorldConference  
Twitter: @mw-cmm  
Instagram: @mw-cmm

*Courier/Correo/Courrier* (ISSN 1041-4436) is published twice a year. See <https://www.mw-cmm.org/article/courier> for publication schedule history.

Mennonite World Conference, Calle 28A No. 16-41 Piso 2, Bogotá, Colombia. T: (57) 1 287 5738. Publication Office: Courier, 50 Kent Avenue, Suite 206, Kitchener, Ontario N2G 3R1 Canada. T: (519) 571-0060.

Publications mail agreement number: 43113014  
Printed in Canada at Derksen Printers using vegetable-based inks on paper from a responsible sustainable forest program.

## 편집자의 말



### 병상, 건강, 축하 속에서 기억하기

만약 여러분이 MWC 평화 위원회의 의장이자 평화를 위한 커피의 창립자인 조지 판토자의 말을 들어보았다면 분명 평화를 만들기 위한 그녀의 네 가지 사역에 대해서도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 창조주와의 관계적 조화(영적 변화)
- 타인과 관계적 조화(사회정치적 변화)
- 피조물과 관계적 조화(경제-환경적 변화)
- 자기 자신과 관계적 조화(정신적-사회적 변화).

우리는 하나님 뿐 아니라 타인, 환경, 그리고 자신과도 평화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분열을 경험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병에 걸리듯이 우리의 마음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육체적, 영적, 정서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위장병이나 골절로 아플 때 기도를 통하거나 의사의 도움, 또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도움으로 치유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도움 뿐 아니라 의료 전문가나 신앙 공동체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번 호 *Courier*에서는 정신 건강이 우리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 어떤 다양한 전략을 이용할 지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 믿음과 삶 위원회는 종교 개혁을 기념하기 위한 10년 계획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1517년 마틴 루터(Martin Luther)가 99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의 교회 문에 붙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선조들이 교회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찾고 그 이해의 실천으로 서로 다시 세례를 베푸는 1525년 1월 21일의 급진적인 종교 개혁은 이로부터 몇 년 후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연대 주일을 정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 위원회는 2017년 2월 독일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있었던 첫 번째 행사(18페이지 참조)를 시작으로 ‘갱신 2027’이라는 10년간의 기념행사를 기획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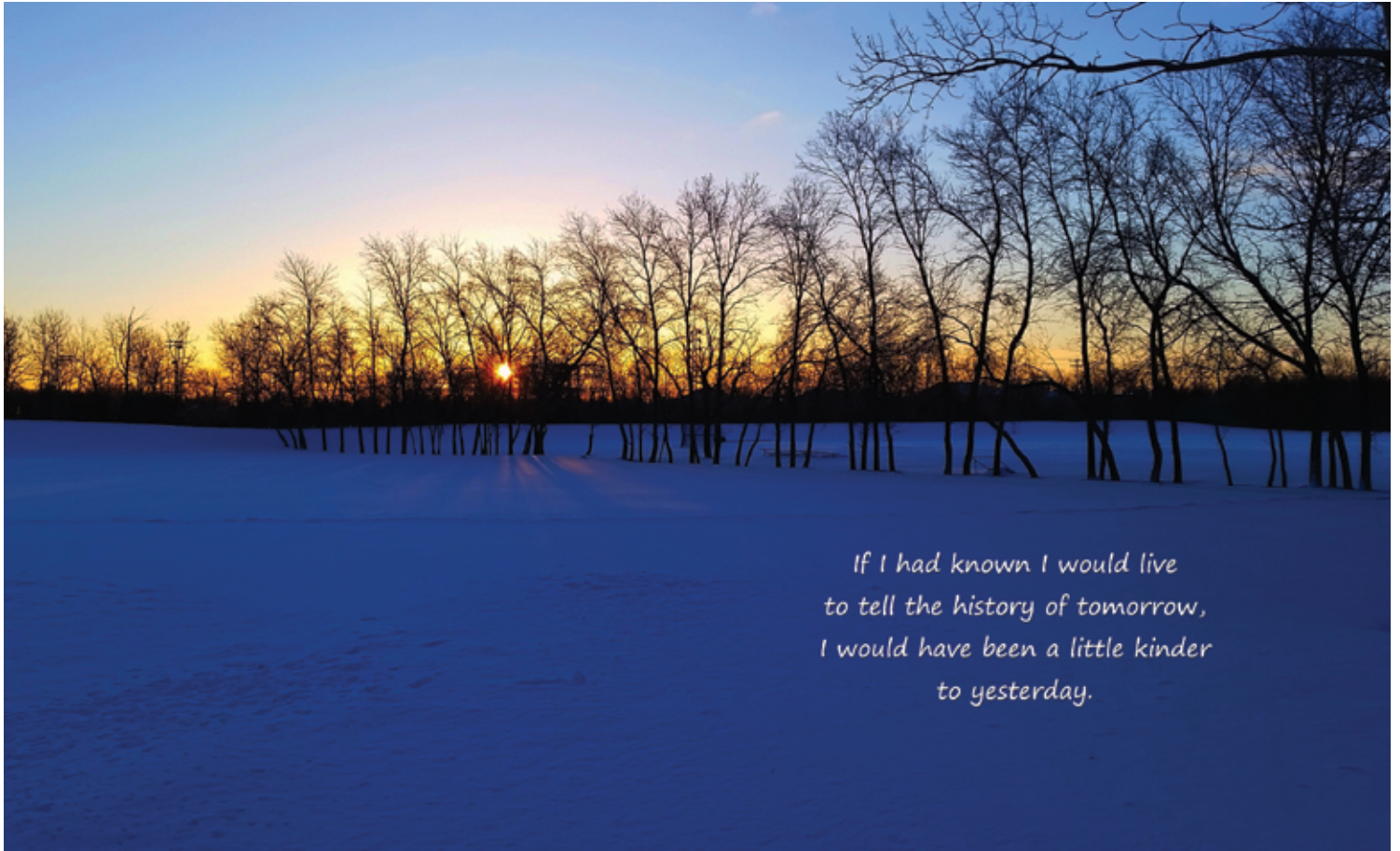
“말씀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매일의 평범한 일상에서 한 발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 하라고 충고한다. 이는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믿음과 삶 위원회장인 존 로스(John Roth)는 메노나이트(The Mennonite)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신앙 운동이 교회의 분열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기억할 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16세기 초 아나뱃티스트 운동의 시작에서 무엇을 되살려야 할까요?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표현해야 할까요? 남반구의 교회들 사이에서는 어떤 새로운 방식의 신앙 표현이 등장 할까요? 북반구의 교회들은 어떻게 *ecclesia semper reformanda*(교회는 항상 스스로 개혁 한다.)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날 세계 아나뱃티스트 교회 가족에게 도전을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이나 기관 모두 건강해야 하고, 폭력적인 세상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급변하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Courier*잡지를 통해 이렇게 서로 연대하고 기도 하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이루는 삶에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카를라 브라운(Karla Braun, 캐나다 위니펙)은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 편집장이자 작가이다.

# 정신 건강이 교회에 영향을 미칠 때



*If I had known I would live  
to tell the history of tomorrow,  
I would have been a little kinder  
to yesterday.*

by Joanne Klassen

**벤**의 부모는 22살 된 아들이 정신 상담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혼란스러워 크게 걱정하기 시작했다.

벤은 평범한 아이였다. 밝고 창의적이었으며 재미있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이들 돌보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요즘의 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날 선 비난을 던지고, 편집증 적인 증상으로 며칠씩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스스로에게도 낯선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벤은 학업에 대한 부담에 대해 불평을 했고, 지난 학기 내내 그는 성적 때문에 힘들었다. 그는 비밀 프로젝트를 하느라 친구들

과 어울리지도 못했다.

벤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벤의 양 편은 경찰이 붙들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사나웠지만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

부모님을 향해 자기를 체포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하며 쓰아보기도 했다. 자기 자녀가 이런 말을 입에 담았다는 사실에 벤의 부모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작은 병원 응급실에 앉아있는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을 의식하면서 스스로 진정시켰다. 벤은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

내가 내일의 역사를 말할 줄 알았더라면 나는 어제에게 조금 더 친절했을 것이다.

## “내일은 더 친절하게”

건강한 정신을 가지려는 나의 시도 중 하나는 자아성찰,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 안에서의 명상이다.

내가 내일의 역사를 말할 줄 알았더라면 나는 어제에게 조금 더 친절했을 것이다

사진: 댄 디크(Dan Dyck), 홀 스트리트 메노나이트 교회, 위니펙, 매니토바, 캐나다

# 교회가 세상 안에서 공허의 빛이 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정신 건강을 잃고 있는 개인 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 조울증이란 무엇인가?

조울증에는 두 가지 증상이 있다. 조증과 울증이다. 조울증은 조증과 울증이 나타나는 모습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이 나뉜다.

울증은 우울증, 흥미를 잃는 증상, 즐거운 일에도 기뻐하지 않고 쉽게 짜증을 내는 모습, 식욕과 체중의 급격한 변화, 불면증, 거식증, 존재가치에 대한 부정, 수치심, 집중력 장애,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으로 확인 가능하다.

조증은 사람을 평소보다 과한 활동을 하게 만든다. 조증을 겪고 있는 사람은 잠도 거의 자지 않고 평소보다 많이 이야기를 한다. 생각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으며 충동적이고 흥분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고통스러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르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지출, 무분별한 성관계, 도박, 난폭운전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때로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환청을 듣거나 환각을 보는 등의 증상으로 고통받기도 한다. 또는 기괴한 상상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그런 증상은 일상 생활을 살짝 방해하는 정도이기도 하고 입원을 해야 하는 정도가 되기도 한다.

## 교회의 반응

교회가 세상 안에서 공허의 빛이 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정신 건강을 잃고 있는 개인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교회 내에서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어떤 건강 상태의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한다. (빌립보서 2: 1-8, 야고보서 1:22-27, 요한 1서 3:16-18, 출애굽기 15:7-11, 마태복음 25:34-46) 노숙자 중 많은 수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 조울증으로 고통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정부의 지원 역시 표준 이하의 주거 환경이 가능한 정도이다. 때로 그마저도 어려울 때도 있다.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인 것이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에게 잘 맞는 일을 찾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을까?

캐나다 매니토바에 있는 메노나이트 교회

“자신, 타인 그리고 자연과의 평온함과 평화.

사진: 에디스 요한나 무뇨스(Edith Johanna Munoz), 베르나 메노나이트 교회, 보고타, 콜롬비아





## “이사하는 날”

나는 믿는다  
 꼬여버린 우리 모두가 이 혼돈 속에서 길을 찾을 것을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함께 사는 법을 배울 것을  
 서로와 함께 평화 속에서

나는 믿는다  
 인생의 집을 지거나 내려놓을 때  
 그 때가 우정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 하나되어 건강한 공동체로 사는 길을 찾을 때  
 그 때가 우정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사진: 루스 하더(Ruth Harder), 레인보우 메노나이트 교회,  
 캔자스 시티, 캔자스, 미국

재단의 에덴 건강 케어 서비스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뿐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에서 직업 서비스도 일관적으로 제공했고, 이제는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 더 많은 케어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밖의 추가적인 필요에 따라 새로운 케어를 공급하기도 한다.

크리스천 가치의 기초는 사랑, 용서, 회복, 수용,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가치들은 끊임없이 조울증 등의 정신 질환으로 괴로워하는 형제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넓은 의미로서 교회인 우리 개개인이 ‘이들을 도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상상과 결정에 갇혀 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다.

### 가치 있는 은사

만약 우리가 진지하게 교회를 하나의 지체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를 위해 개별 구성원이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을 지 질문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라” (고린도전서 12:22,24 개역개정).

종종 우리는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의 짐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각자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 역시 열

정, 극적인 표현, 약점에 대한 솔직함, 정신 건강 구조에 대한 경험 등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소속감을 갖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참여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나의 몸은 많은 지체들이 모여 하나가 되어야 만들어진다. 우리가 다양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의 몸으로 더욱 단단하고 풍성해 질 것이다.

### 판단하지 마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울증은 이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방해해서 충동적이고 과격하게 행동하도록 만든다. 교회 내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았던 행동이나 죄악의 행동에 대해 비상식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런 행동을 저지른 사람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훈계한다. 하지만 조울증의 복잡성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그런 시도 자체에 대한 반발이나 의문을 부르기도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감정과 관계의 문제에서 신체적인 요소는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 뇌가 우리의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선택이나 관용에 관한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누군가 우리가 문제 의식을 느끼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소속감을 갖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참여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제공  
 하는 것이다.

# 어떻게 말씀과 기도, 찬양과 설교가 신체적 질환만큼 심각한 정신 질환에서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위해 그 사람의 행동을 참을 수 있을까?

규칙을 벗어난 행동은 자연적인 결과나 법적인 결과를 부르기도 한다. 우리 마음에 “판단하는 자들은 스스로 판단 받지 않기 위해 조심하라.”는 예수의 말을 깊이 새겨보자. 건강 관리 시스템, 사법 시스템, 고용주, 상점 안에서 우리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한 사람의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할 수 있을까?

## 예배와 정신 건강

정신 건강 진단이 치명적인 것은 그것이 낙인효과를 부르기 때문이다. 사회와 교회는 가끔 두려움과 오해에서 소외의 이유를 찾기도 한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 찬양과 설교가 신체적 질환 만큼 심각한 정신 질환에서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를 대할 때 “그들” 대신 “우리”를 사용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리가 정신 건강의 문제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용기가 생길 때 우리는 교회를 구조 안에서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안전한 장소로 만들어 주게 된다.

어떤 일이 공공연하게 이야기 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수치심은 줄어들 것이고 그 문제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그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오는 공포도 줄어들 것이고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많은 성경 본문이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어떤 정신 건강 기관에서는 예배 중 사용할 다양한 자료를 소개한다.

## 극심한 피로를 예방하기

모두가 교회에 제공할 은사가 있지만 때로 어떤 이들은 더 많은 보살핌과 후원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작은 교회나 마을에서는 비슷한 사람들이 위기에 대처하거나 도움을 주게 된다. 그리고 이 상황이 반복될 때, 이들은 스스로의 노력에 탈진하게 된다.

이런 극심한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다. 이 방법들이 교회 내에서 확립되면 결과적으로 서로에 대한 보살핌의 질을

향상시키고 케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생활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

첫째, 개인을 함께 돕기 위한 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일정한 시간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시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후원이나 사회적응을 돕는 일 또는 영적인 보살핌 등 각자가 맡을 수 있는 특별한 역할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둘째, 개인적인 경계를 정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일은 하지 못한다고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 관계를 맺으면서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경계를 정하는 것이 보살피는 사람과 보살핌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셋째, 스스로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이 한계는 때로는 시간적 한계(예: 한 주에 두 시간 이상을 할애할 수 없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예: 음식은 줄 수 있지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자신이 없음), 스스로의 건강(예: 최근 자기가 우울증을 겪어 그동안과 다른 감정상태를 가지고 있음) 등이 될 수 있다.

교회는 많은 다양성, 개성, 능력,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공통적인 인류애를 탐험할 수 있는 곳이고 우리의 위대한 잠재성을 표현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곳이다.

이는 세상이 때로는 도전을 주고 때로는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여정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자!



조안 클라센(결혼과 가족 치유학 석사, 신학 석사)은 매니토바의 에덴 건강 케어 서비스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워너팍 지역 건강 당국에서 공동 보건 정신 건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 글은 교회, 캐나다와 미국의 아나뱃티스트 편집자 모임을 위해 쓰여졌다.



**“자신, 타인 그리고 자연과의 평온함과 평화.**

정신 질환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의 전체 상황을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봐서 답을 찾지 못할 때 생긴다.

사진: 에디스 요한나 무뇨스(Edith Johanna Munoz), 베르나 메노나이트 교회, 보고타, 콜롬비아

# 교회는 정신 건강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만 하는가?

우리의 정신 상태는 육체와 영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육체나 영과 같이 연약해 질 수도 있다. 이번 ‘아나뱃티스트 관점’에서는 전 세계의 아나뱃티스트 교회의 지도자들과 건강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교회가 성도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기 위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지 이야기했다.

## 일본 정신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미와코 카타노이스

**일** 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스트레스다. 일본 사회에서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아프다면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상호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얻는다. 직장동료들과, 가족들과, 심지어는 교회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스트레스 관리”는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관리해 내면의 평화를 얻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정신적 질병을 부를 뿐 아니라 육체적 질병을 부르기도 한다. 같은 의미로 만약 우리가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정신 상태 역시 약해질 것이다.

### 마음과 몸은 연결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건강에 대해 생각할 때 몸과 마음이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것만으로 여기기 쉽지만 스트레스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이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의 근육 중 어떤 부분이 긴장을 하고 굳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긴장한 근육을 어떻게 풀지 알아야 한다. 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접근을 통해 “감정”과 “관계의 경계”를 살펴보기를 좋아한다.

첫째,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다. 관계 속에서 분쟁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우리는 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안 좋게 생각하고 심지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친절하고 착해야 하고, 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들이 들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거나 포기해야 한다. 그 과정은 쉽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음을 우선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 후에 우리는 그 감정들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명상과 운동, 춤, 걷기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우리의 감정을 풀어주는 좋은 방법이다. 남편과 나는 합기도를 연습한다. 이 일본 무술은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정신 수양을 위해서 연습한다. 합기도를 하거나 걷는 것 같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명상하는 것 보다 쉽다. 또한 카이로 프랙틱의 전문가로서 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롭다고 생각한다. 몸이 편해지고 나면 마음도 편해지기 마련이다. 몸은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고백의 힘

크리스천이 부정적인 감정을 돌보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스스로와 또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영적인 친구가 있다면 이런 감정을 다루고 스트레스를 줄여 나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크리스천 공동체로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올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나는 내 교회에 목상 수련회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를 더 유심히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발견한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중요한 점은 관계에 있어 경계를 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한 경계를 가져야 한다. 일본인들은 “아니오”를 말하기 어려워한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다른 이들과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주저한다. 이런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교회 내에서도 다양

**크리스천 공동체로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올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나는 경계에 대해 함께 배우는 모임에 소속 되어있다. 우리는 헨리 클라우드 박사(Dr. Henry Cloud)와 존 타운센드(John Townsend) 박사가 쓴 경계: 당신의 삶을 관리하기 위해 예수를 말해야 할 때, 노를 말해야 할 때라는 책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 역시 경계를 갖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건 우리의 공부에 아주 도움이 되었다. 하나의 모임으로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를 경계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다.

나는 합기도 역시 경계를 배우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발견했다. 마아이, 다른 사람과 보내는 공간과 시간은 일본 무술에서 중요하다. 우리는 수련을 하면서 마아이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된다. 아이와 아이키(합기)는 시간과 연결을 의미한다. 키는 우리 몸을 흐르는 기운을 의미한다. 우리는 상대방과 기를 통해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상대방은 적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로 연결이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버릴 수 없게 된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연결에 대한 이런 인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아주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내면의 평화와 정신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 지 배우는 것은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명상과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관계의 경계에 대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미와코 카타노(Miwako Katano) 일본 삿포로의 메노나이트 교회 교인



# 교회와 정신의학: “복잡한 문제”

알렉시나 오더

**정**신 의학 분야에서 일하는 나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신앙인들이 정확하게는 많은 수의 크리스천이 우리 병원에 입원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환자들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믿음과 희망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환자의 침대 옆에 있는 성경과 같이 구체적인 물건은 “정신과가 크리스천들로 만원이다”라는 인상을 확신하게 만든다. 메노나이트 환자들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크리스천이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로 고통받는다든가 사실이나 정신 착란이 불러오는 또 다른 병에 관해서는 이해한다. 이런 증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신과 계열의 문제는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은 면역체제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내가 헛소리를 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확실할 수 있을까? 심지어 가장 비폭력적인 아나뱃티스트라도 끊임없이 긴장감에 고통을 받으면 위협적으로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해답을 찾기 위해 애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은 정신 질환이 자주 / 때때로 / 일반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정신 질환이 대체로 좌절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인 생각에서 정신 질환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분명 자신의 생각, 말 그리고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는 어떤 일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질병의 책임을 지우면서 우리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한다.

프랑스 연방 정신과 대학생 협회의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정신 의학에 종사하는 크리스천의 수는 다른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크리스천의 수보다 적다고 한다. 하지만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은 분명 다른 어떤 전문 분야의 환자들보다 그들의 신앙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한다.

우리 병원의 환자들은 기도를 드리고 예배도 드린다.

그리고 의사들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무방비한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에 빠질 위험이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할까? 만약 그래야 한다면 어떻게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신앙과 신비한 망상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

### 믿음과 질병

내가 일하고 있는 정신 병원에 누군가가 입원을 할 때, 그 또는 그녀는 서둘러서 예배당의 위치를 확인한다. 그것도 단순히 방을 개조한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 의식을 진행하고 목회자가 종사하고 있는 진짜 교회를 찾는다. 최근, 한 정신 분석가는 인턴들에게 성직자들이 신앙의 경험을 통해 발견하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신비로운 섬망들에 대한 정확하고 탁월한 진단을 내리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정신적으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왜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교회는 이미 정신 분열증, 조울증, 만성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자들의 집이나 다름없다. 나는 교회가 100명 이상의 교인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중 누구도 정신 건강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자기 교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베푸는 호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알든 모르든 전 세계 인구의 8%는 정신 분열로 고통 받고 있다. 프랑스의 인구로 적용을 해보면 6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정신 분열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단순한 계산을 해보자. 교회에서는 이들 중 몇 명이 있을 것 같은가? 실제로는 얼마나 있는가? 이런 계산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교회에 비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병이 진행되면서 환자 본인이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시키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들이 마주하게 될 엄청난 도전

**정신 건강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정신 건강 문제의 공통 분모는 불안이다. 교회는 정규적이고 체계화된 예배, 매주 만나는 사람들,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로의 참여 등을 통해 사람들을 현실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비종교적인 나라의 정신과 전문가로서 나의 일은 사람들이 기분 좋아지도록 돕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정상적인 삶”을 찾으면서 현실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다.

정신 건강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그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 각자 소속감을 느끼고 모든 멤버들이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면서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역할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라보고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는 형제로 대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관심을 표현하는 것의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정신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단순히 가능할 뿐 아니라 훌륭한 행동이다. 나는 이들 역시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동안 찾았던 사람들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시 그들을 찾아야 한다.



알렉시나 오더(Alexina Yoder), 프랑스 벨포르트 - 몽 벨리야르의 델 교회 출신. 현재 스트라스부르 메노나이트 교회의 교인. 정신의학과 인턴

# 콜롬비아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교회

네이슨 토우스(Nathan Toews)와 폴 스텠키(Paul Stucky)

**19**60useo 중반 이후, 콜롬비아는 무장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약 700백만 명의 실종민이 생겼고 6만 명 이상의 실종자와 60만 명에 가까운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큰 도시로 피난을 왔고, 우리 교회에도 피난민들의 일부가 출석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다양한 능력과 재능이 있었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잃어버린 슬픔에 잠겨 있었고, 자기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정의가 바로 세워 지기를 원했으며, 피난을 온 도시 역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콜롬비아의 아나뱃티스트 교회와 기관은 이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더 나아가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EMU의 가장 인기 있는 강의를 통해 배운 것과 MCC의 트라우마 치유를 통해 배운 것을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지역 교회가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치유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잠재적인 힘을 발견했다. 그리스도 형제회, 메노나이트 형제 교회, 그리고 메노나이트 교회는 심리사회적 활동을 위한 교회 모임(CEAS)라는 기회에 함께 참여했다. 이는 피해자를 받아들이는 지역 교회가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할지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다.

## 치유의 공간이 되기 위한 방법

2012년, CEAS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향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은 아나뱃티스트 교인들과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의 목적은 강제 이주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치유의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교회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의 대답을 통해 반응은 지역 교회가 치유의 통로가 되는 놀랍도록 단순한 방법을 확인했다. 교인들은 상처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표하고 안정감을 제공했으며 그들의 슬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 스스로도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그들이 삶의 의미를 찾아 자기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응원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했다.

정신과 의사인 주디스 헤르만(Judith Herman)과 안정감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 STAR의 치료사 캐롤린 요더(Carolyn Yoder)에 의해 알려진 증언들에 따르면 치유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사회로부터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연결되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의 삶의 의미가 흔들릴 때, 삶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행동이 이들을 회복으로 이끌었다.

성경을 트라우마와 그에 대한 회복의 렌즈를 통해 읽으면서 우리는 고향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의 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예레미야 애가 3장, 시편 79편, 137편)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욕의 마음(욥기 2장, 19장)을, 시편에 나오는 믿음과 회복(시편 23편, 91편)을,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 담긴 소망을(미가서 4장 1절-4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온 예수가 우리에게 빚지게 한 소망(요한복음 1장 1절-14절, 에베소서 2장 17절-19절)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과 화해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베소서 1장 23, 고린도후서 5장 18절-20절)을 알게 된다.

## 존엄성의 전환

고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안드레스(가명)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보고타의 테사키오 메노나이트 교회에 나왔다. 그는 아버지와 형제를 죽인 사람들이 언제라도 보고타 거리에 나타날 수 있다는 기분에 떨고 있었다. 안드레스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느끼고 자신이 환영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새로운 이해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그는 중요심을 잃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존엄성을 발견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세워 나갈 수 있었다. 안드레스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지역교회에서 이들을 환영하고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또한 그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제공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EAS의 프로젝트는 그 결과물로 지역교회와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학습 안내서



Study guide for a healing church.

를 소책자로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콜롬비아의 여러 지역에 있는 메노나이트 교회와 메노나이트 형제 교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소책자는 트라우마의 희생자 뿐 아니라 총명한 삶으로 전환 될 필요가 있는 고통, 거절 및 상실감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소책자에 담겨있는 간증, 성경, 그리고 실천 방법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다.

콜롬비아는 평화 협정을 맺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지역 사회는 그 동안 싸우던 이들을 화해시키고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희생자들은 진리와 정의가 바로 세워 지기를 원한다. 새로운 형태의 무장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유 공동체로서 지역 교회는 평화를 세우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용서와 화해를 위한 조건을 제공한 것을 통해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도 있다. 트라우마 치유는 내면화 된 피해와 희생을 끝낼 수 있다. 또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끊어진 사회적 관계를 다시 연결 시키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도록 할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지역 교회는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 치유와 희망의 장소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교회 경험을 문서화했고, 문서화된 자료는 각 교회의 '지역 사회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네이슨 토스(Nathan Toews)와 폴 스텠키(Paul Stucky)는 MCC가 지원하는 CEAS에서 함께 근무했다. 현재 네이슨은 MCC 볼리비아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폴은 MWC 안데스 지역 대표로 일하면서 CEAS에 조언을 주고 있다.

# 미국 전인적 건강

by David Bruce Rose

**마**음은 믿는 사람들이 정서적 또는 심리적인 문제가 신앙심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편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안정감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나는 놀라울 정도로 깊고 강한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앓고있는 많은 사람들과 일 해왔다.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정서의 문제가 신앙의 부족에서 온다는 전제를 갖는 것은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 인간성에 대한 성경적 묘사

정서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에게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하나됨'으로 묘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지(물질적 요소)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명 또는 생명의 영(영적 요소)으로 채워 주신 것을 볼 수 있다. 아담은 생각(동물에게 이름을 줄 때), 감정(여자를 보면서 느끼는 기쁨)을 느낀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만들어 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담은 정신과 몸과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 사람으로 묘사된다. 이런 상호 연결은 만성 통증과 같은 신체적 문제가 영적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신 모든 도구를 필요한 순간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악한 청지기의 행동이다.**

처럼(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영적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역시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영적 성장이 육체적, 정서적 성장을 돕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열왕기 상 19 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런 상호작용에 대한 훌륭한 예이다.

## 엘리야의 우울증

열왕기상 19장은 시작부터 엘리야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갈멜산에서의 흥분되는 승리 후, 그는 당연하게도 정서적 쇠약을 경험한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동안 왕의 병거와 함께 달린 후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진다. 설상가상으로 영웅으로 칭찬을 받아도 모자라는 판에 왕비가 자신의 죽음을 명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된다.

성경은 엘리야가 "우울증"의 주요 증상들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는 공포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피했다. 그는 희망을 보지 않고 죽기를 원하며 생각 역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그의 믿음 역시 부정확해지고 그의 믿음은 무질서한 사고마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우울증은 또한 엘리야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 그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사라지게 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아 사막으로 갔고, 하나님은 낙담하고 우울해서 믿음이 약해진 엘리야에게 은혜화 사랑으로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야의 모든 인성에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돌보셨다. 하나님은 그 즉시 엘리야와 이야기를 해서 그를 영적, 정서적으로 돌보지 않고 우선 그의 육체적 필요를 먼저 채우셨다.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먹이고 재운 후 엘리야를 호렘산으로 가게 하셨다. 엘리야가 어느 정도 영양 보충이 되고 육체적으로 강해져서 호렘산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마침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엘리야가 겪고 있는 우울증의 원인들과 직접 부딪히셨다. 엘리야사나 예후와 같은

다른 신실한 자들과 합류할 것을 명하셔서 엘리야의 고독과 부딪히시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라는 말씀을 통해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켰다. 그리고 스스로 입재하심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에 믿음을 회복시켰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우울증, 불안감, 거식증 또는 결혼 생활의 위기와 같이 우리가 직면하는 정서적 또는 관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음은 기독교인이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해결 과정이다.

- 기도하라. 예수는 우리 주님이시고 모든 치유의 근원이다.
-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 친구에게 지지와 격려를 구해라.
- 목회자, 장로 또는 다른 성숙한 신앙인에게 조언을 구해라.
-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책을 읽어라.
- 상담은 치유와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하다. When it is needed, it is poor stewardship to not use all that God has provided to reach his goals.

하나님이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신 모든 도구를 필요한 순간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악한 청지기의 행동이다.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을 하나님에게 지시하는 것 또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몇 해 전, 어느 교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 주셨다. "예수는 우리가 세상의 모두가 겪는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데이비드 브루스 로즈(David Bruce Rose)는 메노나이트 형제 교회 대학인 프레즈노 태평양 신학교(Fresno Pacific Biblical Seminary)의 결혼 가정 연구 교수이다. 이 기사는 MB Herald에서 처음으로 발행되었다.

# 무덤을 벗어난 생활

태국의 척박한 토양에서 아나뱃티스트적 표현이 뒤섞여서 꽃피고 있다.

by Carol Tobin

“태국 : 선교의 무덤”. 이런 묘사가 수십 년 동안 태국 선교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그 다른 이야기가 드디어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나뱃티스트가 그 안에 있다.

## 교회의 씨앗

201년 전, 앤 주드슨(Anne Judson, 미국인 선교사 아도니람 주드슨 Adoniram Judson의 아내)은 태국어로 버마에 붙잡힌 태국 포로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로부터 12년 후인 1828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태국에 도착했다. 카톨릭 신부가 그 땅을 찾은 지 260년 후의 일이었다.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에게 1800년대는 놀라운 헌신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선교사들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풀기 어려운 불교와 브라만주의에 기초한 사회의 응집력과 대항했다.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인 정령 숭배의 뿌리에 대항해야 했다. 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식민지를 저항하기 위한 완벽할 정도의 부드러운 외교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선언했다. “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교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크루 신자들이 지역의 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다.

사진 촬영 : 에드 러셀(Edd Russell)

1880년, 하나님께서는 태국을 다시 축복하시기 위해 버마에 세워졌던 기초를 사용하셨다. 카렌 부족 출신의 세 명의 복음 전도자들은 베테랑 선교사에 의해 태국의 마을로 파송되었다. 그 곳에서 복음 전도자들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꿈에서 세 명의 선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중이었다고 한다. 500명의 카렌 부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1900년대는 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 복음의 단절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 구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태국 그리스도 교회(CCT)였다. 그들은 장로교도들이 한 세기 동안 일군 사역의 열매를 맺었다. 선교사들은 교육 기관을 설립했고, 복음 증거에 반하는 지배적인 사회 분위기에 끊임없이 저항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전체적인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추방된 OMF(해

외 선교사 연대)의 유입은 태국 북부를 “산악 부족들” 열매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게 했다. 그 후 오순절 교회의 영향이 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는 태국 중심부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생하는 교회 운동의 첫 사례가 될 기회를 주었다.

## 초기 아나뱃티스트 증인들

첫 아나뱃티스트 증인은 MCC가 1960년 태국과 소극적으로 교류를 시작했을 때 나왔다. 그 후 15년 동안 MCC는 몇몇의 PAX 봉사자(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파견하고 미국에서 판매할 목적의 공예품들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MCC에 대한 헌신의 약속은 베트남인들이 “미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 기간 동안 크게 증가했다. 1975년에 MCC는 태국 그리스도 교회들과 협력해서 난민 지원을 하고 교사를 파견할 기회를 찾거나 농업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



청년 수련회는 노래하고 먹고 함께 놀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사진 촬영 : 에드 러셀(Edd Russell)



을 시작했다. 이 시기에 MCC는 CCT가 인권 옹호와 관해 태국 사회 내에서 교회의 역할을 분별할 수 있게 되도록 후원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와 더불어 태국 내 MCC의 입지는 그 후에도 여러 해 동안 산발적으로 넓어졌다. 캄보디아에서 대량학살이 발생했을 때도 1977년 MCC현장 보고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확실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1979년 공포는 현실이 되었고, 태국으로 오는 피난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MCC는 난민 캠프를 세우는 것에 큰 역할을 수행했으며 라오스, 홍콩,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난민들이 정착하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참전 노동자에 따르면 이 수년간의 시기는 부흥의 시기였다. “말씀과 일”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경이로움을 더하셨다. 오늘날 많은 태국 지도자들이 난민 캠프에 대한 전체적인 증언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다. 버마 사태와 관련된 평화 교육 및 인권 옹호에 더

해 난민 업무는 1995년에 MCC가 사무실을 철수 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 시기가 되어서 다른 아나뱃티스트 선교 단체들도 태국에서의 교회 개척을 위한 비전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스도 형제회의 세계 선교회는 1986년 답사 여행을 진행했고 이어 1987년에 선교사 부부를 파송했다. 그들은 방콕 외곽의 기술 연구소에 취업을 했다. 이들은 제자 훈련을 통해 복음을 나누고 원주민 지도자들의 발전을 장려하면서 궁극적으로 문화 간의 관계를 맺기 위해 이와 같이 스스로 생존할 것을 요구했다.

1990년, 동부 메노나이트 선교회는 답사 작업을 할 사람을 파견했다. 10년간의 선교를 위해 토빈 가족이 들어올 때 함께 교회 개척 팀도 들어오게 되었다. 1995년까지, 그들은 라오어를 사용하는 이싼(Isaan) 지역에 자리잡을 준비를 했다. 이들은 태국의 시골 지역 중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 중 하나였다. 완벽하게 지역의 삶과 하나

가 되었고, 작은 예배 모임과 강력한 지역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풍요로운 삶 교회(Life Enrichment Church)가 개척되고 새로운 마을과 지역으로 뻗어 나갔다.

메노나이트 형제 교회 선교회와 SV(Services International, 지금은 MB 선교회) 역시 1991년의 비슷한 시기에 답사 여행을 했다. 이 여행 후 바로 파송되었던 초기 선교사들은 크무 부족을 만나기 위해서 북부 태국의 난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내렸다. 슈미츠와 팀 구성원들은 마을 전도, 교육 및 농업 개발에 중점을 둔 사역을 발전시켰다. 계속되는 관계는 태국-라오스의 국경을 따라 크무 족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결과를 낳았다.

#### 사역이 뿌리를 내림

MCC가 여러 해 동안 일궈온 좋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나뱃티스트 단체들은 CCT와 함께 일하지 못하게 되었다. 각 기관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새로운 비자 플랫폼

품을 만들어야 했다. 태국의 복음주의 연대는 새로운 파트너이자 교회를 전 지역에 개척하도록 목소리를 내는 기관이 되었다. 동부 메노나이트 선교회의 지구촌 선교팀장 데이비드 쉰(David Shenk)은 EMM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가치를 말 할 때 아나뱃티스트 동지들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팀의 지도자들이 기도와 격려를 위해 많은 여행을 했다. 휴식을 위해 함께 모이는 형태가 발전을 했고 새롭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았다.

1998년에 메노나이트 교회 총회(COM)는 EMM팀과 함께 일하기 위해 캐나다인/라오인 부부를 파송했다. 한 팀을 보낸 후, 그들은 MC 캐나다 증인들의 눈 앞에서 스스로의 교회를 Isaan의 다른 지역에서 개척하기 시작했다.

2001년 1월 팀 2000이 도착했다. 이 세 쌍의 메노나이트 형제 교회의 선교사 부부들은 서로 10년간의 선교를 약속하고 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고아원과 교회를 방콕의 남쪽에 지었다. 그 후에도 여러 지역의 지도자와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포함된 28명의 스태프를 향한 비전을 던졌다.

같은 시기에 BIC 업무를 위한 새로운 리더 Myer 가족도 도착했다. 그들은 EMM의 초대와 격려에 힘입어 UMB Ratchathani의 주도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이곳은 EMM팀이 있는 곳에서 5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이는 교회를 위한 고도의 호환 가능한 비전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위치하면서 비극적인 상실의 시간에 팀이 서로를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메노나이트 미션 네트워크(Mennonite Mission Network)는 이싼(Isaan) 지역에 다른 스태프를 파송했고, 로즈데일 메노나이트 미션(Rosedale Mennonite Mission)은 중앙 아메리카 출신의 2세대 리더들과 함께 방콕에서 그들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이들은 RMM의 장기 선교 기강 동안에 함께했다. 버지니아 메노나이트 선교(Virginia Mennonite Mission) 역시 최근에 풍요로운 삶 교회(Life Enrichment Church)와 파트너를 맺으면서 방콕의 이싼 죽을 위주로 선교의 전초기지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했다. 보수적인 아나뱃티스트 그룹에서 치앙



태국 북부의 변화된 삶 센터는 지도력 훈련과 제자도 훈련을 위한 장소이다.

사진 촬영 : 에드 러셀(Edd Russell)

마이에 아나뱃티스트 선교 훈련 학교(지구촌 기획 연구소, IGo)를 세웠다. 그 결과 적어도 치앙마이에서는 아나뱃티스트가 그들의 머리 덮개와 대가족,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모든 그룹은 제자도에 강력한 중심을 두고 있다. 모두 성령 임재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치유의 힘과 귀신들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힘을 경험했다.

#### 관계적인 연결

아나뱃티스트의 연대에 대한 토론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지만 결정은 부피가 커질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묶이지 않는 방향으로 갔다. 대신 관계적인 연결의 필요성은 공통으로 느끼는 만큼 서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각 팀의 리더들 사이에서도 아나뱃티스트 협의회로 일년에 두 번씩 만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태국인과 라오스인 아나뱃티스트들을 모이기 위한 세 번의 역동적인 모임도 있었다. 장기적인 문화적, 사회경제적과 구분되는 메노나이트-아나뱃티스트

트의 “교회 문화”가 여러 세대에 걸쳐 자리잡으면서 세대 간의 열정적인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었다. 이런 모임들이 아나뱃티스트 자료가 메노나이트 믿음의 고백인 팔머 베커(Palmer Becker)의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이란 무엇인가? 를 태국어로 번역하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국제 메노나이트 형제회(ICOMB)의 믿음의 고백 역시 태국어로 번역되었다. 최근에는 리처드 쇼월터(Richard Showalter)의 아시아로 향했던 초기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와 초기 아나뱃티스트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 또 태국어로 출판되었다.

소비주의적 변형 신학이 인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아나뱃티스트 신앙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 아나뱃티스트 정체성

건강하고 장기적인 관계와 자원은 아나뱃티스트 정체성을 기르는 데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정체성도 있다.

남부 우본 랏차 타니(Ubon Ratchathani) 지역의 풍요로운 삶 교회가 EMM의 팀 리더

## 태국

### 태국 그리스도의 교회 흥몽 제 7구역 교회

인원	1,733
교직원	23
의장	폰차이 반차사완 (Pornchai Banchasawan)

### 크무 미션

인원	39,250
교직원	430
의장	폰 케오 케오빌라이

### 풍요로운 삶 교회

인원	199
교직원	16
의장	솜차이 판타 (Somchai Phanta) 목사

### 태국 메노나이트 형제 재단

인원	1,600
교직원	20
의장	리키 산체즈 (Ricky Sanchez)

\* 집행위원회는 2017년 2월 회의에서 회원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표 출처: 2017년 2월 6일자 MWC 관리 지도

자료 출처: 2015 MWC 회의록



사진 캡션 : 트루먼 허츨러 (Truman Hertzler)가 자기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싼(Isaan) 스타일의 “형제를 환영하는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 촬영 : 캐롤 토빈(Carol Tobin)

존 허츨러(John Hertzler)의 생명을 뺏아간 사고에 휘말렸다. 교회는 용서를 향한 길을 걸어 나갔다. 그들은 여러 달 동안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무책임한 운전자를 제자 삼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이야기의 절정은 존의 부모가 이 운전자가 세례를 받는 날 나타나면서 시작되었다. 교회는 이 굳은 믿음의 사람들이 운전자를 믿음의 가족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중에 교회는 트루먼 허츨러(Truman Hertzler)에게 아나뱃티스트의 역사에 대해 듣기 위해 모였다. 그는 선조들이 율법주의와 무기력에 부딪혀 선교의 기회를 놓쳤던 실패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 하지만 고통을 견뎌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약속(고린도전서 3장 11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방에 있던 성도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아무리 자주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아나뱃티스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아나뱃티스트입니다!” 무덤에도 드디어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현장 선교사들에 의해 생겨나고 있는 공동체 외에도 태국의 현지 아나뱃티스 증인의 발

생을 알리는 또 다른 흐름이 있다. 미국에 자리잡아 살고 있는 몽족 난민의 증언이다. 많은 사람들이 MC USA와 협력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의 몽 메노나이트 교회 미션을 세우고 태국 북 서부 산악 지대에 위치한 몽족이 자신들의 아나뱃티스트 정체성을 드러낼 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2005년 초, 북 아메리카 목회자들과 MMN 관리자,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이 다양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오랫동안 CCT의 일원이었던 몽 크리스천이 그들 스스로의 신학이 아나뱃티스트들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2016년은 “몽족 20 지구”가 CCT의 지역에 새롭게 포함된 아주 중요한 해가 되었다. 넬슨 크레이빌(Nelson Kraybill)의 말에 따르면 “비폭력과 교회에 대한 아나뱃티스트적 이해를 널리 알리고 또한 분명하게 확립하고 싶어 한다.”

이런 교회들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MWC 안에서 그들의 존재를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주목했다. 이들은 복음 전파의 한 일부로서 평화 만들기, 환영하기, 경제적으로 청지기의 길을 걷기, 관용을 베풀기, 열정적인 성경 가르치기, 그리고 리더를 키워내는 모습들 등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했다. MWC와 MMN의 대표들은 2017년 4월, 태국을 방문해 이들을 공식적으로 환영할 예정이다.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태국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아나뱃티스트 증인이 서로 어우러져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다양한 흐름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기대한다. 하나님은 그의 아름다움과 부활의 생명이 이 “무덤”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캐롤 토빈(Carol Tobin)과 그녀의 남편 스킵(Skip)은 1989년부터 2009년까지 태국의 EMM아래에서 교회 개척과 지역 행정을 위해 봉사했다. 현재는 미국 버지니아 주의 해리슨버그에서 살고 있다. 캐롤은 버지니아 메노나이트 미션의 아시아 디렉터로 있으면서 여전히 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노래와 설교 그리고 접시

다른 문화에서 온 음악, 공통 주제에 관한 성경 읽기, 음식의 나눔과 특별한 봉헌은 2017년 1월 22일에 있었던 메노나이트와 그리스도 형제 교회를 포함한 세계 아나뱃티스트의 가족됨을 축하하는 세계 연대의 주일을 나타내는 특징들이었다.

2017년의 주제는 전 지구적 변혁의 위기와 삶의 개인적인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내 부르짖음을 들으심”이었다. (시편 40장 1절-10절, 창세기 11장 1절-9절, 사도행전 2장 1절-18절). [mwc-cmm.org/wfs](http://mwc-cmm.org/wfs)에서는 지구촌 아나뱃티스트의 연합 기념 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배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우리는 500년 전,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에 동기를 부여 받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정했던 용기 있는 남녀들을 기억한다.” 오스카 수아레즈(Oscar Suarez, 이바케 메노나이트 교회, 콜롬비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빵을 나눈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들의 필요를 마주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이다.” 만줄라 룰(Manjula Roul, 베델 BIC 교회, 쿠팅, 오디샤, 인도)

세계 연대 주일은 “다른 사람들이 높이고자 하는 벽을 뛰어 넘는 결정을 내린 형제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것이다.” 오펠리아 가르시아 목사(Ofelia Garcia, 페드로사, 치와와, 멕시코)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같이 지역의 작은 교회에서는 전 세계 아나뱃티스트 연대와 하나되었다는 기쁨을 나타내는 시간이었다. “기도 중에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 중 정치적인 사건으로 박해 받고 낙담한 사람들을 향한 우려를 하나님께 드렸다.” 안드레아 랑게(Andrea Lange, 독일 메노나이트 교회 연합).

“피난민들의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시아카 트라오레(Siaka Traore, 보보 디오라스의 교회 목사, 부르키나 파소). 이 교회에서는 말리에서 온 피난민들을 받아들였다. 2017년 1월 29일 세계 연대 주일을 기념하면서 교회는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었다. “새로운 교회, 그리고 새로 온 일곱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훨씬 더



Photo: Siaka Traore



Photo: Jan Ceas Noord and Jacob H. Kikkert

MWC에 후원하기로 했다. 부르 키나 파소 보보 - 디올라손(Bobo-Dioulasso)의 세계 친목 일요일 축하 행사는 새로운 메노 파 교회 건물을 개척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그로닝겐(Groningen)과 드렌테(Drenthe)에 있는 메노나이트 교회들이 하렌 침례 교회에서 열린 세계 연대 주일 예배를 참석했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세계 연대 주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독교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 권위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이다.” 마빈 딕(Marvin Dyck, 크로스로드 메노나이트 형제 교회 목사, 위니펙, 매니토바, 캐나다). “이것은 정부나 문화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경의 모범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다.”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 발표



Photo: José A. Vacca B.

세자르 모야(Cesar Moya, 목사, 이바케, 콜롬비아)가 전 세계 이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교회는 한 해를 정리하는 MWC 비디오를 상영했다. The Radicals의 한 부분을 보았고, 헌금은



# “성경은 여전히 말하고 있다.” 갱신 2027이야기

독일, 아우구스부르크— 아나뱃티스트 지역 교회의 대표들과 전 세계 지도자들이 2017년 2월 12일, “말씀으로 변화되기: 아나뱃티스트의 관점에서 성경 읽기에 참석하기 위해 아우구스부르크에 모였다. 이 행사는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갱신 2027”의 첫 행사였다. 주최 측인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이하 MWC)는 10년동안 진행될 예정인 “갱신 2027”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더욱 큰 지체를 이룬 것에 감사하고 이 행사를 통해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가 걸어온 길을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알프레드 뉴펠트(Alfred Neufeld, 파라과이, MWC ‘믿음과 삶’ 위원장)는 아나뱃티스트 신앙이 성경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생겨났다고 말했다. 이런 신앙적 기초에 따라 아나뱃티스트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가치가 있는데,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개인의 신앙고백, 믿음에 대한 자유로운 고백과 그에 따른 세례,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원수를 사랑하는 것, 화해를 향한 서약 그리고 국가 교회에 대한 거부 등이었다.

뉴펠트는 메노나이트 전통 5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무엇이 검토,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학과 실천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번 행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행사 중 MWC 대표들은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사도행전 15장 1-21절에 근거한 찬양과 성경 연구를 통해 서로 합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나뱃티스트 신앙에 대한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발레리 렘펠 교수(Valerie Rempel, 미국, 프레즈노 퍼시픽 신학교)의 말이다. 렘펠 교수는 이어서 “우리는 초기 아나뱃티스트 영성같이 급진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읽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의 신학적 전통이 다시 만나게 해야 한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초대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짐바브웨의 마카두니스웨 느굴루베(Makadunyswe Ngulube)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나누지 않는다.”고 말했다. 느굴루베와 다른 청년 아나뱃티스트(이하 YABs) 위원회의 강사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배움과 나눔의 책임을 강조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제자도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한 그와 같이 사랑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나누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설교자 마카두니스웨 느굴루베(Makadunyswe Ngulube)

어야 한다.”라고 필리핀의 에베네셀 몬데즈(Ebenezer Mondez)가 말했다.

전 세계에서 온 특별 강사들은 신앙 고백을 통한 성경 읽기에 대해 말했다. “성경을 개인으로 읽을 때도 회복은 일어난다. 하지만 함께 성경을 읽을 때, 회복의 힘은 더욱 강해진다.” 독일 루터교의 대표 프리데릭 누셀(Friederike Nuessel)의 말이다. 누셀과 카톨릭의 콜롬비아 주교 아우구스토-카스트로(Augusto-Castro)는 메노나이트, 카톨릭, 루터교 이렇게 삼자간교단 대표로 참석했다.

“아나뱃티스트 전통 안에서 성경 읽기는 예배, 친교, 증거, 그리고 봉사 등의 실천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뀐다.”고 YABs에서 멘토로 활동 중인 티기스트 겔라글(Tigist Gelagle, 이디오피아)이 말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한 인상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기초적인 가르침을 얻었다.” 초기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을 감동시켜 순교하게 한 진리가 오늘날도 예수를 따르는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복음의 핵심이다.” 겔라글의 결론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했던 메노나이트 노동자 공동체의 장인 도리스 헤게(Doris Hege)는



지역 음악가들이 제 16차 총회의 찬양집을 통해 찬양 인도를 하고 있다.

성경공부에 참석한 행사 참가자들

성경이 살아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헤게는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새롭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하고 계신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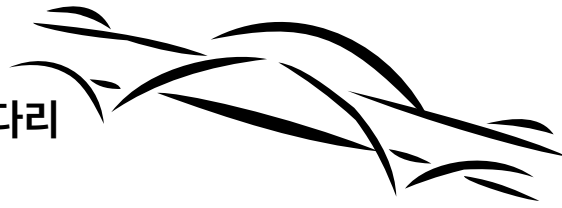
스위스의 메노나이트 교단의 다니엘 가이저-옉플리거(Daniel Geiser-Opplinger)는 이 시대에 아나뱃티스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고 동시에 반가운 얼굴과 새로운 만남이 있을 친교의 기회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갱신 2027”의 다음 행사는 성령에 대한 주제로 2018년 4월에 케냐에서 있을 예정이다. 존 D. 로스(John D. Roth)는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열리는 “갱신 2027” 행사의 주진행자이다. 얀틴 휘스먼(Jantine Huisman, 네덜란드), 헨크 스티버스(Henk Stenvers, 네덜란드), 라이너 부르크카르트(Rainer Burkart, 독일) 등이 함께 “갱신 2027”의 진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 발표

# 평화 주일

## 새로워진 평화 교회가 다리를 놓았다.



다양성 때문에 분리된 세상에서 평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평화에 헌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는 평화 교회로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삶에 재헌신 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평화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퀘이커, 그리스도의 형제들 교회와 함께 메노나이트는 역사적인 평화 교회로 알려져 있다. MWC는 전세계 믿음의 공동체로서 2017년 9월 24일을 평화 주일로 기념할 계획이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조차도 깨어진 관계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가?

Mwc-cmm.org/article/peace-sunday를 방문하면 평화 주일을 위한 예배자료를 찾을 수 있다.

—MWC 평화 위원회

# 신실한 종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

여러분이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해왔고 올해 은퇴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도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듣기만 해도 바로 알아차릴 것이다.

1978년, 당시 사무총장이던 폴 그레이빌(Paul Kraybill)은 MWC 제 10차 총회 행사에 필요한 디자인 요청을 위해 온타리오의 워털루에 있는 신입 글렌 프렛츠(Glenn Fretz)의 집을 방문했다. 글렌은 다양한 언어로 발간되는 출판물의 디자인을 맡아서 다양한 문화에서도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림 기호를 사용해 로고를 만들었다.

글렌이 만든 십자가와 지구 모양으로 이루어진 단순하지만 기억에 남는 로고는 오늘날까지도 하늘에 알아볼 수 있는 MWC의 상징이 되었다. 이 로고는 MWC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했다.

그 후 40년 동안, 글렌이 디자인한 것은 1990 세계 메노나이트 안내서: 세계의 메노나이트 증인들, 찬양집(1990, 2003, 2009), MWC의 다양한 브로셔, 세계 예배 예식서(2012, 2015), MWC 세계 지도(2009, 2015) 등이 있다. 또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해리스버그에서 있었던 제 16차 총회 의 로고도 글렌이 만든 것이었다.

글렌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세인트 제이콥스(St Jacobs)에 있는 방문자 센터에서 지구촌 MWC색션의 디자인을 맡기도 했다.

2012년 홍보담당 론 렘펠(Ron Rempel)이 글렌을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MWC의 표준화된 브랜드 디자인의 매뉴얼을 정할 자문위원으로 불러줄 것으로 MWC에 의뢰했다. 이 때 글렌이 만든 응



캡션 : 최종 계획 지도를 보고 있는 글렌 프렛츠와 펜실베이니아 2015의 복도 표지판.

사진 촬영 : 바이런 렘펠 버크홀더(Byron Rempel Burkholder)

용 프로그램 템플릿은 3개 국어의 서명(로고와 3개 국어로 표기된 MWC), 레터헤드, 브로셔, 포스터, 보고서, 및 리소스 헤더, 광고, 전시, 장식, 배너, 북마크와 같은 인쇄 응용 프로그램용 템플릿; 참조 노트 및 워크북 템플릿; 웹 사이트, MWC 인포(온라인 뉴스레터), 페이스북, 파워 포인트와 같은 전자 응용 프로그램용 템플릿 등이 있다. Courier의 새로운 디자인도 글렌의 감독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글렌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제 16차 총회의록이다. (회의록은 [https://mwc-cmm.org/sites/default/files/website\\_files/mwc\\_proceedings\\_1.pdf](https://mwc-cmm.org/sites/default/files/website_files/mwc_proceedings_1.pdf) 및 [https://mwc-cmm.org/sites/default/files/website\\_files/mwc\\_proceedings\\_2.pdf](https://mwc-cmm.org/sites/default/files/website_files/mwc_proceedings_2.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렌이 디자인한 MWC 자료는 언어를 초월해서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카를라 브라운(Karla Braun)

# 당신은 성경 읽기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나는 매일 성경 공부를 한다. 매일 아침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밤,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 중 설교는 내가 하거나 부인이, 또는 아이들이 한다. 우리집에서는 8살짜리 아이에게도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 —가르시아 페드로 도밍고스(Garcia Pedro Domingos), 메노나이트 공동체 교회, 앙골라



말씀을 읽는 것은 내게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야 한다는 것 역시 알려주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해석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행동이 스스로를 풍성하게 한다. 어느 순간에도 사랑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당연히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사랑이다. —에스터 마틴 마올(Ester Martin Mallol),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그리스도 형제 교회, 스페인



나는 성경을 읽을수록 점점 더 변화되었다. 말씀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말씀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 들어왔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다. —라리사 스왈츠(Larissa Swartz), 미국의 보수 메노나이트 교단

##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 집행위원들이 계획하고, 환영하고, 함께 축하했다.

콜롬비아 보고타—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 (이하 MWC)가 갱신 2027 (종교개혁과 아나뱃티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10년 계획 행사)를 시작했다. 집행위원회는 독일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새롭게 참여한 많은 가족들을 환영했다.

2017년 2월 12일, 아우구스부르크에 서 있었던 “말씀으로 변화되기: 아나뱃티스트 관점으로 성경읽기”(갱신 2027)의 전후로 집행 위원회와 4개의 위원회, 청년 아나뱃티스트 위원회(YABs), 그리고 MWC의 지역 대표를 포함한 스태프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였다. 여러 해 동안 메노나이트와 루터교 세계 연합과 크리스천 연합을 위한 주교회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 모임 역시 이 시기에 독일에서 마지막 모임을 가졌다.

MWC에 소속된 회원 교회의 국가는 현재 105개국이며 1개의 제휴 단체도 등록되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복음주의 메노나이트 의회, 멕시코 복음주의 메노나이트 교회 모임, 영국 메노나이트 교회 공회 등은 활동을 중지했거나 탈퇴했다. 집행위원회는 태국의 제 7구역 교회, 브라질의 복음주의 메노나이트 교회(COBIM),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복음주의 메노나이트 교회를 정회원으로 받아들였고, 그 외 교회의 크기에 따라 준회원으로 우간다 메노나이트 교회, 포르투갈 메노나이트 교회 모임 등을 받아들였다.

MWC집행위원회는 MWC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한 잠재적인 진행 과정을 시작할 것을 총회에 제안했다. 내년 중, 지역 대표들은 MWC의 포괄적인 이름을 선정하기 위



EC 멤버 폴 핀하스 (Paul Phinehas, 인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구스 세티안토(Agus Setianto, 인도네시아)가 바라보고 있다. 사진: 빌헬름 옹거(Wilhelm Unger)

해 모임 예정이다.

지구촌 아나뱃티스트 연구 기관의 존 로스(John Roth)는 지구촌 아나뱃티스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제 아나뱃티스트 프로젝트: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 24개 회원 교회들이 말하는 그들의 믿음과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이 보고서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리고 그 밖의 세 가지 언어로 번역될 예정이고 PDF 파일은 [www.goshen.edu/isga/gap](http://www.goshen.edu/isga/gap)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에 받은 후원에 대한 재정 계획을 위해 집행위원회는 2017년 말 온라인으로 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위원회의 연말 기준을 2018년 8월 31로 변경하자는 안건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것이다.

MWC 사무총장의 임기는 6년이며 2018년에 끝이 난다. MWC 총회는 만장일치로 케사르 가르시아에게 재임을 요청했다. MWC 총회장 넬슨 크레이빌(Nelson Kraybill)은 독일의 숙담을 인용해서 “MWC에 필요한 것은 것은 양털도 생산하고, 우유도 짜낼 수 있고, 알도 낚으면서 식용 가

능한 돼지다.”라고 말했다. 케사르는 “많은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MWC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광범위한 업무와 역할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는 그가 재임을 수락해주어서 기쁘다.”고 말을 맺었다.

MWC 평화 위원회는 예레미야 최 윈 카우(Jeremiah Choi Wing Kau, 중국-홍콩)를 전남식(Namshik Chon, 대한민국)을 대체해서 받아들였다. 또한 YAB 위원회는 오스카 수아레스(Oscar Suarez, 콜롬비아)를 도미니크 베르겐(Dominik Bergen, 파라과이)의 후임자가 되어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할 사람으로 환영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70개 이상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16세기 아나뱃티즘의 역사적 중심을 만날 때, 교회 안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만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것이다.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현대의 증인들은 아나뱃티스트의 사명에 따라 예배를 이끌 것이고, 소명을 나눌 것이며 토론하고 계획하고 함께 울고 웃을 것이다.” 총회장 넬슨 크레이빌이 말했다. “카톨릭 및 루터교의 형제들과 세례에 대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즐거움 중 하나였다. 오늘날, 이런 우정을 만들고 같은 복음 안에서 희망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증언을 전 세계의 형제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데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 발표



성경은 어린 시절,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어머니는 우리를 교육하시면서 성경을 읽게 하셨다. 매일 점심 시간 후 성경을 읽었던 것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자라면서 우리는 각자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더 많은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향으로 잘 실천되었다. —글라디스 시에멘스(Gladys Siemens), 브라질 메노나이트 교회 연합(AIMB), 브라질

### Give a gift to MWC

Your prayers and financial gifts are deeply appreciated. Your contributions are important. They will:

- Enable and expand communication strategies to nurture a worldwide family of faith,
- Strengthen our communion's identity and witness as Anabaptist Christians in our diverse contexts,
- Build up community through networks and gatherings so we can learn from and support each other.

Go to [www.mwc-cmm.org](http://www.mwc-cmm.org) and click the “Get involved” tab for prayer requests and on the “Donate” table for multiple ways to give online.

Or mail your gift to Mennonite World Conference at one of the following addresses:

- PO Box 5364, Lancaster, PA 17808 USA
- 50 Kent Avenue, Kitchener, ON N2G 3R1 CANADA
- Calle 28A No. 16-41 Piso 2, Bogotá, COLOMBIA



## MWC Publications Request

I would like to receive:

### MWC Info

A monthly email newsletter with links to articles on the MWC website.

- English
- Spanish
- French

### Courier

Magazine published twice a year (April and October)

- English
- Spanish
- French

- Electronic Version (pdf)
- Print Version

Mailing delays? Consider the benefits of electronic subscription. Check this box to receive your *Courier/Correo/Courier* subscription via email only.

Name

---

Address

---

---

---

Email

---

Phone

---

Complete this form and send to:

Mennonite World Conference  
50 Kent Avenue, Suite 206  
Kitchener, Ontario N2G 3R1 Canada



**YAMEN participants Dina Molina and Marly Aceituno from Honduras.**

Photo: Janet Plenert

## 제자도를 실천하는 공동체



“울지 마세요,” 교회 형제 중 한 사람이 내가 아주 비극적인 사고로 친척을 잃었을 때 건넨 말이였다. 그가 “이 성경구절을 읽어보세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슬픔의 시간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할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였다. 나는 성경 공부가가 아니라 친구가 필요했다.

“나는 상담을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역 교단의목사님이 몇 년 전에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충고는 사람을 상담자에게 의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몇 년 후, 나는 그의 교회 성도 중 하나가 교회에 아주 크게 분노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의 친척이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교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소외감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희미한 희망을 붙잡으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

지던 그 힘든 고통의 시간동안 교회의 목회자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힘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분쟁이나 분노, 질병, 그리고 죽음에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주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약점과 강점 그리고 그 원인을 볼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는 현명한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성에 대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대해 예수 중심적인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결혼이나 육아, 취업, 은퇴 등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그 길을 안내해 줄 누군가가 있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다. 기독 상담은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히 그들이 해야 하는 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대한 충고를 주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렇게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특별한 도전의 순간을 마주할 때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지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인 것이다.

오늘, 교회 사회 안에서, 제자도는 코칭, 테라피, 영적 지도, 멘토링, 영적 양육, 상담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젠 제자도의 넓은 범위 안에서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학습능력 없음 등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상담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제자도를 실천해야 한다.

제자도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을 기회를 얻는다. 우리는 힘든 도전을 맞닥뜨린 사람들의 곁에서 단지 빈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의 실천을 통해 진심으로 위로하며 함께 할 수 있다. 많은 남반구의 지역 교회들은 폭력과 고통의 경험을 겪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듣기가 얼마나 그들을 붙들어 주는 지 확인했다. 상대방에 대한 판단하려는 태도 없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것에도 상대방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런 힘의 원인은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남반구의 많은 지역에서는 이 외에도 좀 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마음의 질병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상담 기술을 치유를 돕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북반구의 거대한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을 남반구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나눌 수 있을까? 나는 이 글에서 상담 영역의 교육 자원, 분쟁 해결, 멘토링, 테라피 등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이번 호 *Courier*는 이런 문제에 대해 더 다문화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도록 우리 교회들을 초대했다. 우리가 제자도를 따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 자원, 경험, 그리고 필요를 나누어야 한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공활한 마음으로 함께 걷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자도를 향해 진지하게 들으면서 치유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케사르 가르시아, MWC 사무총장(콜롬비아 보고타 본부)